

현대패션의 신체부위에 따른 에로티시즘(Eroticism)표현

-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을 중심으로 -

최 나 리* · 우 주 형⁺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Expression of Eroticism According to Body Part in Modern Fashion

- Focused on Editorial Fashion Photography -

Na-Ry Choi* · Joo-Hyung Woo⁺

Master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Inha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Inha University⁺

(2005. 3. 12 투고)

ABSTRACT

The consumption became a virtue of social in 20th century, and this consumption culture created an ideal body image through mass media. Sexual image became a new standard of 'beauty' in a modern fashion, and designs which expressed sexual image appear every season. Individuals were fascinated with some parts of human body. These body parts are different based on the time period and the culture that the individual belonged to. This study focused on the erotic body parts and expression on the editorial fashion photography. Eroticism represented in the editorial fashion photographs can be divided into the expression by clothing design and by creating erotic atmospheres. Erotic expressions by clothing design can be presented by 1)exposing directly 2)exposing indirectly 3)emphasizing the body parts. The most frequently presented erotic body parts in fashion photographs were legs(25%), followed by the bodice with breast (21%), the waist (16%), the hip (12%), neck & shoulder (10%), arms (9%), and abdomen (7%). The results indicated that legs were considered to be a erotic body parts often than the traditionally referred erotic body parts, such as bodice with breast or hip. While direct exposing method (e.g., adhesion, see-through) was frequently used for other body parts.

Key words: eroticism(에로티시즘), body parts(신체부위), exposure(노출), editorial fashion photography(에디토리얼 패션 사진)

I. 서론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지난 세기와 달리 20세기는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는 시기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다. 20세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문화라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냈다. 1920년대 등장한 소비주의는 시각적인 이미지인 광고를 통해서 개인들에게 몸의 스타일을 계발하도록 설득 하였고 지배적인 시각매체인 텔레비전과 영화를 통해 유연하고 우아한 육체, 매혹적인 얼굴과 미소를 보여줌으로써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된 이상적인 몸 이미지를 계속해서 창조해 냈다. 몸은 쾌락의 수단이며 이상적인 몸매에 근접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몸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주변에 존재하는 시각적 이미지들은 외모, 의복, 품행, 몸짓에 주목하게 했다.¹⁾ 이러한 몸과 성적인 이미지는 미니스커트의 등장과 히피족의 탄생, 산악제한 피임약 등이 유행했던 1960년대에 패션 사진에 도입되었고, 1970년대 에로티시즘 경향의 패션 이미지가 여러 사진작가를 통해 표현되면서 패션 사진에 관한 토론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1970년대에 일어난 페미니즘과 성 개방화의 사회적 상황에서 뉴턴, 보멩과 같이 에로티시즘의 경향을 추구하는 사진가들은 상징적이며 암시적이고 고전적인 에로티시즘의 패션 사진을 촬영했다. 1980년대에 에로티시즘은 더욱 노골적이고 육감적인 표현으로 변하였다. 1990년대 특히 게스와 켈빈클라인 광고에서 에로티시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 패션 사진에서 여성의 몸은 상품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상품이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21세기에 들어선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사람들이 인체의 특정부위에 대해 성적매력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유전자 속에 남아있는 본성이고,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 부분이 다른 이유는 사회를 통한 학습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적 특성은 시대를 불문하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복식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부위가 바뀌기도 한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서구의 남성복은 장식성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 패션은 여성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다. 또 여성의 몸은 남성과 비교하여 다양한 부위의 성감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감대의 이동은 특정부위를 강조하는 패션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다양한 신체부위는 에로티시즘을 발산하기 위한 중요한 장(場)이 되었고, 패션에 표현되는 에로티시즘은 신체부위에 따라 그 표현 방법과 복식의 특성이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세기들을 걸쳐오며 계속되어 나타나고 있는 몸과 의상, 에로티시즘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에서 출간된 패션잡지의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을 통해 신체부위에 따른 에로티시즘의 표현방법과 신체부위에 따른 복식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현상들이 앞으로의 패션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측해보고자 한다.

인간의 본능에 속하는 에로티시즘은 인간생활의 모든 면에 깔려 있으며 신화, 관습, 종교, 예술 및 의상 등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의상은 에로티시즘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과거부터 중요하게 인식되었을 뿐 아니라 의복 선택의 중요한 동기가 되어왔기³⁾ 때문이다.

패션 사진의 한 종류인 에디토리얼 패션 사진(Editorial fashion photography)은 잡지에 기사 내지 화보의 형태로 게재되는 것을 전제로 촬영한 사진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여성잡지의 주요 스토리들을 이루는 근간이 되며, 이러한 점에서 현대 매체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패션잡지에 실린 에디토리얼 패션사진들을 통한 유행전파 방법은 보다 자세하게 패션을 살펴볼 수 있고, 편집자들의 도움을 받아 유행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방송 매체에 비해 유행전파의 속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 까지도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에디토리얼 패션 사진은 항상 독자들에게 흥미가 있는 주제를 선택해야 하며,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도 전달해야 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시각적인 멋진 이미지들을 독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⁴⁾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에디토리얼 패션 사진은 패션잡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신체부위별 에로티시즘의 표현을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그 당시 사회의 패션을 가장 잘 이끌어가고 반영하는 매체를 분석하는 것으로 디자인적 표현방법 외에 사회의 에로티시즘의 수용 정도까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에서 에로티시즘적 디자인의 수용정도를 가늠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

2. 연구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현재 패션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남성과 비교하여 성적 매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여성의 몸과 의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통해 과거의 복식과 에로티시즘에 관한 연구들은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본 논문의 연구 기간은 21세기 초인 2000-2004년까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에디토리얼 패션 사진에서 인체와 패션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에로티시즘에 관하여 알아보려 한다. 연구 자료는 에로티시즘과 복식에 관한 전문서적과 논문 등의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00-04년도의 국내에서 출간된 패션전문지 보그(Vogue)와 하퍼스 바자(Happer's Bazaar)의 에디토리얼(editorial) 패션 사진 6728장 중 에로티시즘을 유발하는 2636장을 분석하도록 한다. 2000년대 이후 패션에 나타난 신체부위에 따른 에로티시즘 표현 방법의 분석을 위해 다양한 주제를 가진 패션 사진들 중 노출을 전제로 하는 수영복과 속옷, 특정 아이템을 주제로 한 사진은 제외하였다.

두 잡지의 패션 사진들 중 에로티시즘을 자극하는 사진들을 선정 한 후, 신체부위에 따라 구분하여 에로티시즘의 표현방법과 복식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패션을 통해 몸의 에로티시즘을 표현하는 방법은 선행연구를 통해 직접노출, 간접노출, 강조로 나누었고, 신체부위는 목과 어깨, 보디스(bodice)와 가

슴, 배, 허리 엉덩이, 팔, 다리로 구분하였다. 중요한 인체 부위중 하나인 머리(얼굴포함)는 화장과 헤어스타일에 따라 변화가 다양하고, 대부분이 직접적인 노출로만 이루어진 부분이다. 또 머리는 의상과 직접적인 관계가 낮은 부분이기에 제외하였다.

II. 에로티시즘과 복식

1. 에로티시즘과 의복

에로티시즘이란 그리스어로 에로스(Eros)에 어원을 두고 있는 말로 원래는 육체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을 포괄하는 개념의 용어였으나, 근대에 와서는 주로 육체적인 사랑, 즉 성애(性愛)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에로티시즘에 관한 사전적 해석은 '성적인 만족을 위한 양식으로서 호색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육체적인 사랑을 묘사하고 그것을 고양(高揚)시키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에로티시즘이란 생물로서 인간의 본능적 욕망과 생식행위와는 무관하며 본질적으로는 심리적인 기반에서 발생한다. 이것은 인간의 문화적 전통이나 신호, 관습, 종교, 예술, 복식 등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고,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며, 민족과 시대, 개인에 따라 각기 다르다⁵⁾고 할 수 있다. 조르주 바타이유는 '에로티시즘은 동물의 성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인간의 성행위이다. 인간의 성 행위가 모두 에로틱한 것은 아니며, 오직 동물적이지 않을 때만이 인간의 성행위는 에로틱한 것일 수 있다.'⁶⁾ 라는 말을 통해 에로티시즘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문화임을 말해주고 있다.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복식과 신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을 정도로 옷과 신체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Flügel은 패션이란 이동하는性感대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여체의 머리, 목, 유방, 허리, 엉덩이, 팔, 다리는 남성에게 있어 성적 매력을 느끼는 부위이므로 남성에게 보이기 위하여 시대, 민족 개인에 따라 옷으로 강조되거나 감추어짐으로써 패션이 변한다고 하였다.⁷⁾ 옷으로 수치스런 몸을 가리며 정숙한 체하지만 오히려 감

추어진 몸의 부위에 더욱 성적 매력과 관심을 끌며 에로티시즘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성인적 자아로 유아적 충동을 억제하고자 하나 더욱 무의식적으로 성적 속성이 강화된다고 하였다.⁸⁾ Laver는 복식을 이동하는 성감대설(shifting erogenous zone)로 설명하여 에로티시즘과 패션의 연관성을 주장⁹⁾하였으며, Goffman은 몸 개념이 복식을 함축하고 있으며 몸 개념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데 핵심은 복식이라고 하였다. Roach와 Eicher는 의복을 가시적인 자아라고 하였고, Davis는 의복은 언어와 유사한 형태의 코드이며 자아 정체성을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하였다.¹⁰⁾ Steel은 의복이 물리적인 몸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깊은 수준에서 의복은 에로틱하고 패션의 내재된 특징인 미의 추구도 에로틱하다고 했다. 또 복식은 몸을 은폐함으로써 성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의복을 벗기고 싶은 욕망을 생기게 한다고 하였다.¹¹⁾ Rubinstein은 패션으로 표현되는 에로티시즘의 이미지를 기독교에서 나타난 유혹자로서의 에로티시즘 이미지, 남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여 부, 권력, 특권에 도달할 수 있게 여성을 발전시킨 에로티시즘, 20세기에 미디어는 남성들이 선호하는 미성숙하고 순수한 여성성을 창조하였는데 이를 남성이 만든 에로티시즘 이미지와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구분하였다.¹²⁾ 이와 같은 점을 미루어 볼 때 복식은 나체의 몸에서 에로티시즘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아를 표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에로티시즘의 가장 일반적인 표현방법은 노출이다. 인간은 노출을 금기의 대상으로 여기면서도 의복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타인에게 노출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의복을 통한 에로티시즘의 표현 방식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직접노출, 간접노출, 강조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직접노출이란 신체의 일부분을 직접적으로 노출하여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아무 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인 누드와는 다르다. 직접노출이란 의복을 착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부분이 가려지지 않고 타인에게 보이도록 한 것을 말한다. 간접노출은 직접노출과는 달리 의복의 형태나

특성에 의해 신체의 윤곽선이나 신체를 부분적으로 또는 살짝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간접노출의 방법으로는 선행연구를 통해 슬래쉬, 슬릿, 커팅, 시스루, 밀착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간접노출은 은유나 암시, 연상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에로틱한 신체부위를 감지하고, 형태를 연상하는 심리작용을 일으켜 결국 성적연상에 이르게 됨으로써 에로틱한 느낌을 주게 된다. 강조는 노출과는 다른 개념으로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복식을 통해 강조함으로써 에로티시즘을 표현한 방법이다. 강조는 크게 확대와 축소를 통해 신체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는 여성이 노동을 하지 않고 예쁘게 꾸미는데 열중할 수 있었던 시기에 많이 사용되었다. 과거에는 과도한 형태로 신체가 변형되기도 하였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장식을 통한 강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2. 복식사 속에 나타난 에로틱한 신체

인류의 발달과 함께 복식도 시대에 따라 발전하고 그 모습도 변화하였다. 복식을 통해 사람들은 이성을 유혹할 수 있는 성적매력을 발산하였다. 시대에 따라 인체에 대한 미의식이 변화하였고 그에 맞게 복식도 변화하였다.

각 시대별로 인체에 대한 미의식을 살펴보면 고대 이집트 시대는 농경사회로 여성의 인체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인체의 라인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실루엣이 유행하였다. 그리스·로마 시대에 와서는 황금비율에 따른 이상적인 인체를 표현하기 위해 키톤이나 히마티온과 같은 자연스러운 주름이 드레이프 되는 의복을 입었다. 중세 시대는 종교의 영향으로 인체는 무시되었으며 의복 또한 인체의 라인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폐쇄적인 형태로 남녀 성구분이 없는 스타일이었다. 그러나 중세 말 고딕시대에 와서 최초로 남성용과 여성용의 복장이 근본적이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르네상스는 모든 면에서 재생이 되는 것처럼 의복도 교회의 속박에서 벗어나 고대에 추구했던 인체미를 살리고자 하였다. 또 인간중심의 순수한 미의식의 의복을 추구한다는 창조적 목표를 갖고 그리스 로마

의상의 본질인 인체의 아름다움을 살리고자 노력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인체미의 강조와 인위적인 과장에까지 이르게 되었다.¹³⁾ 15-16세기에 이르러 복식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에로티시즘의 부위는 가슴과 허리, 엉덩이였다. 특히 유방의 에로틱한 미를 예술적으로 보이기 위해 화가들은 여성들의 가슴을 노출시키기도 하였다. 이 시대의 복식은 가슴의 노출과 힙의 강조, 두 가지 커다란 특징으로 에로틱한 방법을 취하게 되었다. 또한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적 장식인 슬래쉬는 인체의 일부분을 의복 밖으로 드러내거나 인체의 선은 자연스럽게 나타냄으로서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에로티시즘으로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시대의 전반적인 경향은 자연스러운 몸의 형태보다는 복식의 형태미를 추구하여 인공적인 확대와 축소 그리고 노출의 방법을 처음으로 복식에 적용시켰다.¹⁴⁾ 17-18세기에는 노동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움과 연결되었다. 작은 발, 섬세한 손, 귀여운 유방, 날씬한 팔이나 다리처럼 노동에 부적합한 부드럽고 섬세한 손이 아름다운 것이었다. 피부 색깔은 창백한 색을 추구하였다. 또한 작은 발의 아름다움이 찬양되었으므로 작은 발은 여자의 특징이 되어 여성에게는 특히 자랑이었다. 17세기 후반 에로티시즘에 대한 표현은 가슴과 팔의 노출로 나타났다. 에로티시즘 표현에 있어서 전 시대와 같은 실루엣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점은 소매의 변화로 에로티시즘과 관계되지 않았던 신체의 팔이 처음으로 노출되어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팔이 성적인 매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시대의 어깨와 목둘레를 장식하기 위해 걸치는 술은 데콜테의 모습에서 일시적으로 맨살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되었으나 이것 또한 여성의 에로틱한 면을 강조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 나타났다. 또 이 시대에는 속옷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치로 인해 속옷은 스타킹과 스타킹 끈은 당시의 아주 중요한 유행이 되었다. 18세기 여성들의 육체미 강조를 목적으로 하는 빠니에가 등장하였다. 이것은 허리 아랫부분을 크게 만들어 에로틱한 아름다움을 강조하였다.¹⁵⁾ 19세기 초반 여성들은 어떤 시대보다도 옷을 적게 입었다.¹⁶⁾ 가벼운 흰색의 로브 장 슈미즈는 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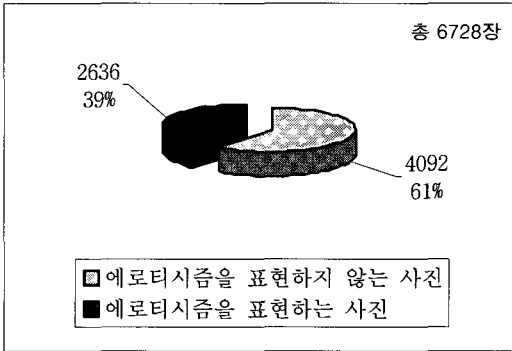
르셋 없이 인체의 선을 따라 흘러내리고 허리선이 가슴 아래로 올라간 이 새로운 패션은 인체를 노출하거나 적어도 그렇게 보이도록 하였다. 이전에 데콜테를 덮었던 모든 종류의 스카프와 피슈는 성적 매력을 은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착용했다.¹⁷⁾ 이러한 의복들은 어깨와 팔, 가슴의 에로틱함을 강조하고, 얇고 비치는 소재를 사용한 시스루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다. 19세기 중반 크리놀린의 발명으로 스커트는 넓고 풍성한 반면, 상의는 더 좁아졌다. 여성들은 코르셋으로 허리를 졸라매었다. 19세기 후반 실루엣을 점점 좁아져 스커트를 뒤로 모아 만든 버슬 스타일이 등장하게 되었다. 코르셋은 앞이 직선으로 편편하게 길어졌으며 이제 허리선을 넘어 엉덩이까지 내려와 가늘게 조여지며¹⁸⁾ 다시금 가슴과 허리, 엉덩이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세기는 패션의 시대로 여성용 바지가 등장하고, 코르셋의 거부, 미니스커트와 스포츠 패션 등과 같은 패션의 가장 의미 있는 혁명이 이루어졌다.¹⁹⁾ 1920년대 소년 같은 이미지의 유행으로 여성의 가슴은 최대한 밋밋해지고, 단발이 유행하였다. 또 스커트의 길이는 점점 짧아져 무릎길이가 되게 되었다. 세계대전 이후인 1950년대는 다시 여성스러움이 주목을 받으며 허리를 조이고, 스커트를 부풀린 뉴욕이 선보였다. 50년대 처음 선을 보인 진은 60, 70년대 히피와 젊은이들의 문화에 힘입어 전 세계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고, 60년대에는 미니스커트가 등장하였다. 70년대 프레타 포르테가 오프 쿠튀르를 대신하여 패션을 선도해나가기 시작하며 유행은 매년, 매 시즌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전 세계가 동시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Ⅲ.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에 나타난 에로티시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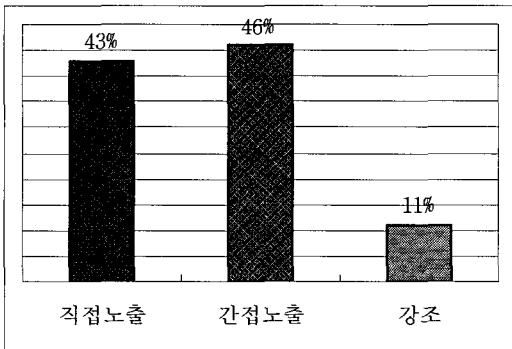
1. 신체부위에 따른 에로티시즘 표현 방법

00-04년도의 보그와 하퍼스 바자의 화보에서 살펴본 결과 전체 화보 6728장 중 에로티시즘을 유발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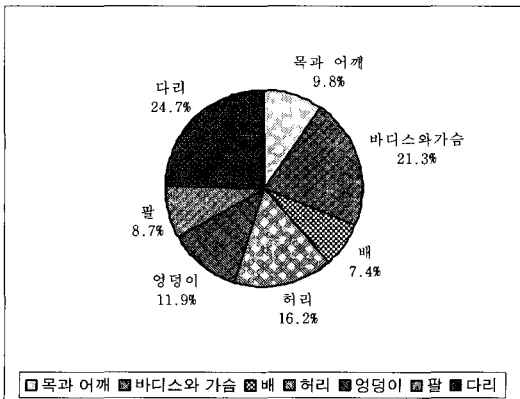
사진은 2636장으로 전체의 39%에 해당하였다. 이는 수영복과 속옷 화보를 제외한 것으로 패션 사진에서 에로티시즘을 표현하는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 에로티시즘을 표현하는 사진의 빈도



<그림 2> 에로티시즘 표현방법



<그림 3> 신체부위에 따른 에로티시즘 표현

패션 사진 속에서 의복과 노출을 통해 에로티시즘을 표현한 방법으로는 직접노출이 2688(26%), 간접노출이 7108(70%), 강조가 432(4%)로 간접노출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현 방법에 따른 분류가 총 페이지 수보다 많은 이유는 한 장의 사진에 다양한 표현 방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노출방법은 신체의 부분을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방법으로 보디스와 허리, 배, 엉덩이와 같은 신체 중심부에서 벗어난 목과 어깨, 팔과 다리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목과 어깨는 66%, 팔은 56%, 다리는 22%로 다른 신체부위에 비해 직접노출에 의한 표현이 많았다. 목과 어깨, 팔 부분이 다른 부위에 비해 직접노출의 빈도가 높은 이유로 이들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가늘고 긴 목과 어깨, 팔은 부드러운 여성성을 나타내는 부위로서 계절에 상관없이 노출이 가장 자유로운 부위이기 때문이다. 다리는 최근 미니스커트의 유행과 긴 길이의 치마를 찾아보기 힘든 현재의 유행과 관련되어 직접노출의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간접노출은 주로 몸통과 다리에서 많이 나타났다. 보디스와 가슴 87%, 배 83%, 허리 84%, 엉덩이 97%, 다리 73%의 비율로 나타났다. 보디스와 가슴, 배, 허리, 엉덩이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가장 많은 부분이고, 신체의 장기와 생식기가 위치하는 주요한 부위로 직접적인 노출보다는 간접노출에 의한 표현이 많이 이루어졌다. 간접노출의 표현방법으로는 시스루와, 밀착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슬릿, 슬래쉬, 커팅도 볼 수 있다. 여성의 가장 큰 특징인 가슴에 비해 배와, 허리, 엉덩이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현재 불고 있는 건강하고 탄력 있는 몸매를 원하는 것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탄탄한 복근, 날씬한 허리, 탄력 있는 엉덩이가 기존에 가슴으로 고정되어 있던 사람들의 시선을 인체의 중심부인 허리라인으로 끌어내렸다고 할 수 있다. 계속되는 시선의 하향화는 사람들이 다리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하였다.

강조는 목과 어깨에서 6%, 보디스와 가슴 3%, 허리 2%, 팔 5%, 다리 5%로 전체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표현방법 중 비중이 가

장 낮았으나 다른 방법에 비해 다양한 부분에 걸쳐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과거와 같은 극단적인 신체의 변형이나, 과장이 아닌 의복을 통한 자연스러운 신체부분을 강조함으로써 다양한 부위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목과 어깨, 팔은 오피와 같은 소재를 사용하여 강조하고, 가슴은 인공적인 보형물 등을 사용하거나, 브로치와 같은 액세서리를 이용하였다. 허리는 벨트를 다리는 화려하고 다양한 스타킹이나, 부츠 등을 사용하여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2. 신체부위에 따른 에로티시즘 표현복식의 특성

1) 목과 어깨

목은 얼굴과 몸통을 연결시키는 부위로 내면의 감정을 풍부하게 나타낼 수 있는 신체부위로 인체 장식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목은 인체 부위 중 굴곡의 차가 크고 얼굴과 연결되어 흥미의 초점을 이끌 수 있는 부위이므로 복식의 장식 중 강조점을 줄 때 흔히 목 주위에 하게 된다. 종교적 정숙성을 강조한 시대에는 목의 노출을 금하였으며 인간의 감성을 중요시한 시대에는 여성의 허약성을 표현하는 목을 드러내어 가는 허리와 함께 전면에서 여성의 에로티시즘을 강조하였다.²⁰⁾

목과 어깨부분은 직접노출이 많은 부분이었는데 <사진 4>와 같이 오프숄더 상의나 어깨 끈이, 없는 의복 아이템들이 주로 사용되었다. 망사나 속이 비치는 얇은 소재를 이용하여 시스루로 표현하는 방법과, 목걸이와 같은 액세서리 등을 착용하여 강조하기도 하였다. 목과 어깨가 노출되는 경우 얼굴의 감정을 더욱 잘 나타내게 해주고 어깨를 드러나는 의상을 입었을 때 드러나는 쇄골은 에로틱한 느낌을 더해 주고 있다. <사진 4>에서는 쇄골을 특히 강조하여 섹시함 느낌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보디스(bodice)와 가슴

몸통은 허리선과 구분되며 가슴으로 특징 지워진다. 그리고 남녀의 체형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인체 부위이다. 특히 가슴은 여성에 있어 여성적 인체의

형태의 특징을 갖는 인체부위로 안정, 모성애, 따뜻함, 안락 우유를 뜻하는 심리적, 감정적 표현 효과를 포함한다.²¹⁾ 또 가슴 전체의 노출보다는 살짝 보이게 노출시켜 경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욱 에로틱하다. 가슴골이 깊게 파인 의상을 입은 여성의 몸에 흐르는 가슴의 경계선은 자극 이상의 것을 느끼게 한다.²²⁾

보디스(bodice)와 가슴은 남성과 다른 여성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신체부위로써 고대부터 에로티시즘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슴과 보디스는 다양한 방법으로 섹시함을 표현하고 있다. 보디스와 가슴을 전체적으로 노출한 것보다는 유두 바로 윗부분까지만 노출을 시키거나 <사진 5>와 같이 가슴과 가슴 사이로 깊은 슬릿이나 슬래쉬를 넣어 가슴선을 보여줌으로써 더욱 에로틱한 느낌을 주고 있다. 또 밀착과 시스루를 사용하여 가슴의 라인을 드러내는 방법과, 가슴 부분에 과도한 장식을 달아 강조하기도 하였다. 보디스의 앞부분인 가슴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멀었던 보디스의 뒷부분인 등은 최근 여러 배우들의 드레스에서 볼 수 있었던듯 직접노출로 인해 에로틱한 부분으로 인정을 받았다. <사진 6>은 이외의 의상인 트레이닝복의 등을 노출시켜 에로틱한 느낌을 더해주고 있다. 등을 노출할 경우 가슴은 크게 드러내지 않아 상대적으로 매끈한 등은 더욱 섹시해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3. 배

배는 여성의 임신과 관련되어 시대마다 또는 문화권 연령에 따라 길이, 크기, 팽창 정도의 강조가 현저히 다르며 배의 강조는 허리선의 높이를 결정하기도 한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여성에게 있어 다산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볼록한 배를 이상형으로 여겼다. 또한 바로크시대 남성에게 있어 둥근 배는 신분의 상징으로 강조되었으나 낭만주의 시대에는 가는 허리와 날씬한 차림은 귀족을 상징하는 차림으로 허리와 함께 배도 줄라매었다²³⁾

배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노출이 힘든 신체 부위로 윗배와 아랫배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일반

적으로 아랫배는 윗배에 비해 볼록하게 튀어 나와 있어 의복을 착용할 때 표현되기 쉬운 부분이다. 짧은 상의와 골반까지 내려가는 로 라이즈 청바지의 영향으로 배는 직접 노출이 이루어 졌고, 밀착된 의상을 통해 드러나는 볼록한 아랫배는 여성임을 강조해주고 있다. <사진 7>과 같이 짧은 상의 아래로 보이는 배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여러 연예인들과 같은 세로로 가늘고 길쭉한 배꼽을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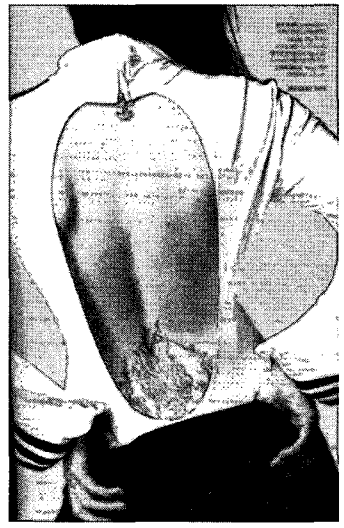
위해 성형을 하기도하고, 배꼽을 뚫는 피어싱을 하기도 한다. 20세기 말부터 일어난 건강하면서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경향은 탄탄한 복근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배가 가지고 있는 에로티시즘을 자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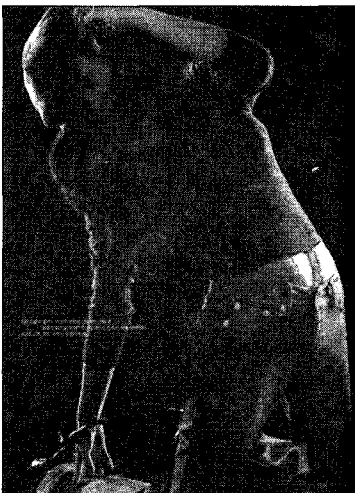
<그림 4> 바자 2001년 11월



<그림 5> 바자 2003년 12월



<그림 6> 바자 2004년 12월



<그림 7> 보그 2004년 10월



<그림 8> 바자 2004년 10월



<그림 9> 보그 2004년 10월

4. 허리

허리는 가장 에로티시즘을 표출하는 인체의 부위이다. 둥근 허리는 임신의 의미하며 번식력과 생산력을 상징적으로 뜻한다. 가는 허리는 여성의 심약성과 우아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인간의 감성이 중시되었다. 바로크시대부터 낭만주의 시대에 강조되었다. 11세기에 종교적인 이유로 하늘에 좀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욕망은 복식에서 수직의 선을 강조하였으며 허리선을 수평으로 분리시킨 옷은 악의 작업이라 여길 만큼 허리선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허리선은 인체의 거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체 비례에 미묘한 영향을 주고 있다.²⁴⁾

허리는 배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배에 비해 에로틱한 느낌을 많이 나타내는 부분이다. 밑위가 짧은 로 라이즈 진의 유행으로 허리의 노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 날씬하고 군살이 없는 허리는 현대 여성들이 가장 선망하는 몸매이기도 하다. 그러나 직접적인 노출보다는 밀착을 통해서 그 실루엣을 보여줌으로써 에로티시즘이 더욱 드러나는 부위이다. 그 이유는 가슴과 엉덩이로 이어지는 신체의 중간에 위치한 가는 허리는 시선을 집중시킴으로 에로틱한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

이다. 가늘고 미끈한 허리는 유연함과 선정적인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사진 7, 8>에서 보이는 오목하게 들어간 허리는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S모양의 실루엣을 강조하며 허리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

5. 엉덩이

여성의 엉덩이 부분은 가는 허리와 대조되어 풍만함, 다산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인체의 한 부위이다.²⁵⁾ 진화론적인 시점에서 엉덩이는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기 이전에 가장 에로틱한 부분으로 보았던 부분이기도 하다.

엉덩이는 생식기와 관련하여 신체의 중요한 부위이다. 그러한 이유로 직접노출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부분 밀착을 통해서 에로티시즘을 나타내고 있다. 가슴과 더불어 여성의 풍만함을 나타내는 엉덩이는 인체의 앞쪽에 있는 가슴과 반대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인체의 뒷부분 중 가장 섹시한 부위가 엉덩이임을 가리키고 있음을 말한다. <사진 9>은 엉덩이를 전면에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에로틱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타이트한 바지와 치마를 통해 나타나는 탄탄하면서도 부드러운 보이는 여성의 엉



<그림 10> 보그 2004년 7월



<그림 11> 바자 2004년 12월



<그림 12> 보그 2004년 5월

〈표 2〉 신체부위에 따른 에로티시즘 표현방법과 복식의 특성

| | 표현방법 | 빈도(%) | 디테일 | 색상 | 효과 | | | |
|---------|------|-----------|------------------|--|---|--|--|--|
| 목과 어깨 | 직접노출 | 798(66%) | . | 검정 흰색 회색 계통의 무채색 파스텔톤의 밝은 색 | 목과 어깨가 노출되는 경우 얼굴의 감정을 잘 나타나게 해줌. 쇄골은 에로틱한 느낌을 더함. | | | |
| | 간접노출 | 337(28%) | 시스루, 밀착 | | | | | |
| | 강조 | 72(6%) | | | | | | |
| 보디스와 가슴 | 직접노출 | 144(10%) | . | | 검정 흰색 회색 계통의 무채색 파스텔톤의 밝은 색 | 여성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위. 간접노출을 사용하여 에로티시즘 극대화. 영덩이와 함께 등이 에로틱한 신체의 뒷모습으로 등장 | | |
| | 간접노출 | 1204(87%) | 시스루, 밀착, 슬릿, 슬래쉬 | | | | | |
| | 강조 | 48(3%) | | | | | | |
| 배 | 직접노출 | 215(17%) | . | | | 검정 흰색 회색 계통의 무채색 파스텔톤의 밝은 색 | 단단한 복근을 보여줌으로 건강한 여성미를 보여줄 수 있음 | |
| | 간접노출 | 1056(83%) | 밀착, 커팅 | | | | | |
| | 강조 | 0 | | | | | | |
| 허리 | 직접노출 | 121(9%) | . | | | | 검정 흰색 회색 계통의 무채색 파스텔톤의 밝은 색 | 가늘고 유연한허리를 통해 에로틱한 느낌을 표현 |
| | 간접노출 | 1104(84%) | 밀착, 시스루 | | | | | |
| | 강조 | 96(7%) | | | | | | |
| 영덩이 | 직접노출 | 0 | . | 검정 흰색 회색 계통의 무채색 파스텔톤의 밝은 색 | | | | 탄력 있는 영덩이는 인체의 뒷모습 중 가장 매력적인 부분으로 인식 |
| | 간접노출 | 1056(97%) | 밀착, 시스루 | | | | | |
| | 강조 | 29(3%) | | | | | | |
| 팔 | 직접노출 | 887(56%) | . | | 검정 흰색 회색 계통의 무채색 파스텔톤의 밝은 색 | | | 목과 어깨, 보디스와 함께 노출이 될 때 효과적으로 에로티시즘을 표현할 수 있음 |
| | 간접노출 | 623(39%) | 시스루, 밀착 | | | | | |
| | 강조 | 72(5%) | | | | | | |
| 다리 | 직접노출 | 529(22%) | . | | | 검정 흰색 회색 계통의 무채색 파스텔톤의 밝은 색 | |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체부위 스타킹을 이용하여 에로티시즘을 더욱 자극 |
| | 간접노출 | 1728(73%) | 시스루, 밀착, 슬릿 | | | | | |
| | 강조 | 120(5%) | | | | | | |

덩이는 이성을 유혹하는 에로티시즘을 발산한다.

6. 팔

팔은 의복의 소매로 표현되는 부위로서 소매의 형태와 크기는 복식의 무드를 폭넓게 결정하고 복식 전반의 통일에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권위와 예의를 상징하기 때문에 비활동적, 비합리적으로 구성되는 장식적 경향을 띠기도 한다.²⁶⁾

현대에 이르러 가늘고 긴 팔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부위가 되었다. 소매가 짧거나 없는 옷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노출의 빈도가 높은 부분이였다. 또 시스루와 밀착을 통해서 에로티시즘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사진 10, 11〉은 가늘고 긴 팔을 전면에 보이게 하여 연약하면서도 에로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사진 4, 5〉에서 볼 수 있듯이

팔은 단독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목과 어깨, 가슴, 보디스 부분과 같이 연결하여 노출되었을 때 보는 이로 하여금 완전한 상반신을 그리게 해줌으로서 그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 다리

오랜 동안 다리는 노출되지 않은 채 성적 흥미를 주지 않는 인체부위로 간주되어 왔다. 여성은 긴 치마 속에서 의존적이며 연약하며 비활동의 상징으로서 다리를 은폐하여 왔다. 다리를 노출한다는 것은 경제적, 지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유에 대한 가시적 표시인 것이다. 20세기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 남녀평등과 함께 짧은 치마와 바지의 착용으로 다리는 노출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인체 부위로 부각되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와 패션 변화의 척도로서 다리 노출에 대

한 스커트 길이의 변화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²⁷⁾

신체 중 가장 긴 길이를 차지하고 있는 다리는 미니스커트의 등장으로 에로틱한 여성의 신체부위 중 하나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해마다 변하는 치마 길이는 다리를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스타킹이나 부츠 등을 이용하여 그 섹시함을 더 하고 있다.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을 때 보여 지는 직접적인 노출과 타이트한 청바지, 다양하고 화려한 스타킹에 의한 밀착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스커트를 입을 때 슬릿을 사용하여 다리를 간접노출을 표현한 방법도 있었다. <사진 11>에서 보이는 가늘고 긴 다리는 여성의 각선미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사진 12>에서는 망사 스타킹을 사용하여 시선을 다리에 집중시키고 있다. 가늘고 긴 다리는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체부위임이 틀림없다.

패션 사진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을 주는 다양한 신체부위와는 달리 의복의 색상은 검정과 흰색이 무채색이 주를 이루고 빨강과 파스텔 톤의 색상이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검정과 흰색은 가장 단순한 색으로 인체의 굴곡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특히 에나멜과 가죽 소재의 검정은 광택으로 하여 가슴과 엉덩이까지의 곡선을 잘 나타내고 있다. 흰색은 순수한 색으로 여겨지는데 오히려 흰색의 의복을 통해 노출과 밀착 등이 표현되면서 더욱 에로틱한 느낌을 나타내고 있다. 빨강은 정열의 색으로 에로티시즘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색으로 포인트 색상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색이 원색보다는 흐린 색이나 탁한 색을 사용함으로써 인체의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다. 간접노출의 경우 소재에 따라 표현방법과 에로틱한 분위기 연출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스루 표현의 경우 망사, 쉬폰 등과 같이 얇은 소재를 사용하였고, 광택이 있는 가죽, 에나멜 소재와 스판덱스와 같은 신축성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밀착을 표현하고 있다.

V. 결론

복식사를 통해 시대에 따라 남성이 여성에게서

찾는 매력적인 신체부위는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일정한 기간, 특정한 한, 두 부분의 신체부위가 에로티시즘을 유발하던 것과 달리 현대패션의 다원화된 스타일은 보는 이로 하여금 직접거나 익숙해지는 것을 피하고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여러 신체 부위가 다양한 표현방법을 통해 에로티시즘을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다.

21세기 초반 국내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에서 인체의 에로티시즘은 표현방법은 밀착이나 시스루 의복을 통한 간접노출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인 보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람들이 완전한 나체보다는 신체의 한 부위가 살짝 노출된 모습에서 더욱 에로틱함을 느끼는 것과 일관성이 보여 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복을 통한 표현방법 중 간접노출이 직접노출이나 강조보다 더욱 효과가 있음을 보여줌으로 21세기 중, 후반에 패션에 나타날 섹시함은 슬래쉬(slash), 슬릿(slit), 커팅(cutting), 시스루(see-through), 밀착 등을 통한 방법으로 표현될 것이다. 또 간접노출에서 큰 역할을 했던 다양한 소재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패션의 유형들은 모두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 지기는 했지만 이미 기존에 있었던 것들의 변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새롭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재의 중요성이 점차 중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로티시즘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신체 부위는 다리, 보디스와 가슴, 허리, 엉덩이, 목과 어깨, 팔, 배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리는 오랜 동안 노출이 되지 않았으나 20세기 이후 미니스커트와 바지의 착용으로 직접적인 노출이 많이 지기 시작했으며, 현재에는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신체부위로 꼽히고 있다. 보디스와 가슴은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곳으로 특히 가슴은 여성신체의 특징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고대부터 에로티시즘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다. 가는 허리와 풍만한 엉덩이는 서로 대조되어 인체의 에로티시즘을 표출하고 있다. 최근 유행했던 로 라이즈 진의 유행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허리가 노출되고, 타이트한 청바지로 인해

탄력 있는 엉덩이 라인이 강조되었다. 목과 어깨는 얼굴과 몸통을 연결하는 부위로 주목성이 강한 부위이다. 가늘고 섬세해 보이는 목과 어깨의 선은 여성의 허약성을 표현함과 동시에 에로틱한 느낌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가늘고 긴 팔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부위가 되었다. 팔은 단독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목과 어깨, 가슴, 보디스 부분과 같이 보여줄 때 그 효과가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날씬한 몸매를 추구하는 현대의 패션에서 배는 군살을 없애고 탄탄하게 가꾸어져만 에로티시즘을 자극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현대 패션 사진에서 에로티시즘을 자극 할 수 있는 신체는 전체적으로 가늘고 긴 목과 어깨, 팔, 다리는 가져야 하며, 가슴과 엉덩이는 너무 크거나 작지도 않으면서도 탄력이 있어야 한다. 또 허리와 배는 군살 없이 탄탄하게 보일 수 있게 근육으로 다듬어져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에서의 에로티시즘적 디자인의 수용도를 알아볼 수 있었다. 보그와 하퍼스 바자와 같은 국내 패션전문잡지에서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의 61%가 에로티시즘을 표현하는 사진임에 반해 그 표현정도는 간접노출이 많고, 기존의 에로틱한 신체 부위들만 보여준데 그치고 있다. 이는 에로티시즘에 대한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에로티시즘을 나타내는 신체부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 표현도 국외의 컬렉션이나 패션사진들에 비해 직접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에로티시즘에 대한 전체적인 표현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앞으로 더 다양한 표현방법과 에로틱한 신체부위에 대한 패션사진들이 등장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패션 사진은 이제 단순히 유행을 전파시키는 매개체가 아닌, 그 자체로서 패션이 되어버렸다. 21세기 패션에서는 에로티시즘을 단순한 노출과 성에 대한 표현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의복을 통해 인체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해줄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패션잡지 화보의 특성상 의복의 디자인보다는 주제에 맞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에 초

점에 맞추어져 있어 계절적 요인을 고려않지 않는 등 현실 상황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국내에서 출간된 여성 패션잡지를 연구 대상으로 함으로써 국외의 컬렉션에서 볼 수 있는 노출의 정도와 복식 특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국내의 성문화에 대한 인식도와 사회·문화적인 영향으로 노골적인 신체 표현이나 의복을 통한 직접적인 성 이미지 표현은 제한된 점이 있었다. 국외 패션잡지의 에디토리얼 패션사진과의 비교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또 기존의 에로티시즘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에 대한 연구가 서양복식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동양복식사에 나타난 에로티시즘 연구와 함께 동·서양의 에로티시즘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의 차이와 공통점, 인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김은희 (2002). 복식에 표현된 여성의 몸 이미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박사학위논문, p. 57.
- 2) 임태석 (1999). 현대 패션 사진의 에로티시즘 전개와 표현에 관한 연구. AURA, 6(1), pp. 98-102.
- 3) 홍주표 (2001). 패션 사진의 에로티시즘 표현유형에 따른 소비자 반응 및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현대사진영상학회, 4(1), p. 10.
- 4) 김성민 (2005). 대중 잡지의 에디토리얼 패션 사진이 독자들의 '몸'이미지와 수용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AURA, 12, p. 159.
- 5) 김덕자 (1989). 광고와 에로티시즘. 서울: 미진사, p. 60.
- 6) 조르주 바타이유, 조한경 옮김 (1998). 에로티즘의 역사. 서울: 민음사, p. 31.
- 7) 김민자 (2004). 복식미학 강의 2. 서울: 교문사, p. 82.
- 8) 위의 책, p. 82.
- 9) 김은희, 앞의 책, p. 42.
- 10) 위의 책, p. 32.
- 11) 위의 책, p. 41.
- 12) 위의 책, pp. 42-43.
- 13) 권기영, 조현주 (2002). 현대 예술에 나타난 신체의 표현과 복식의 조형성. 대한가정학회지, 40(6), p. 9.
- 14) 김경희, 이순홍 (1997). 근세 회화에 나타난 복식의 에로티시즘에 관한 고찰. 복식, 35, pp. 218-224.
- 15) 위의 책, pp. 225-227.
- 16) 제임스 레버, 정인희 옮김. 서양 패션의 역사. 서울: 시공사, p. 169.
- 17) 게르트루트 레네르트, 박수진 옮김. 패션. 서울: 예경, pp. 86-87.
- 18) 위의 책, pp. 105-111.
- 19) 위의 책, p. 116.

- 20) 김민자. 앞의 책, p 25.
- 21) 위의 책, p.27.
- 22) 임태석 (2000). 헬멧 뉴튼(Helmut Newton)의 에로티시즘 패션 사진에 관한 연구. AURA, 7(1), p. 31.
- 23) 김민자. 앞의 책, p. 31
- 24) 위의 책, pp. 29-30.
- 25) 위의 책, p. 31.
- 26) 위의 책, p. 32.
- 27) 위의 책, p. 33.